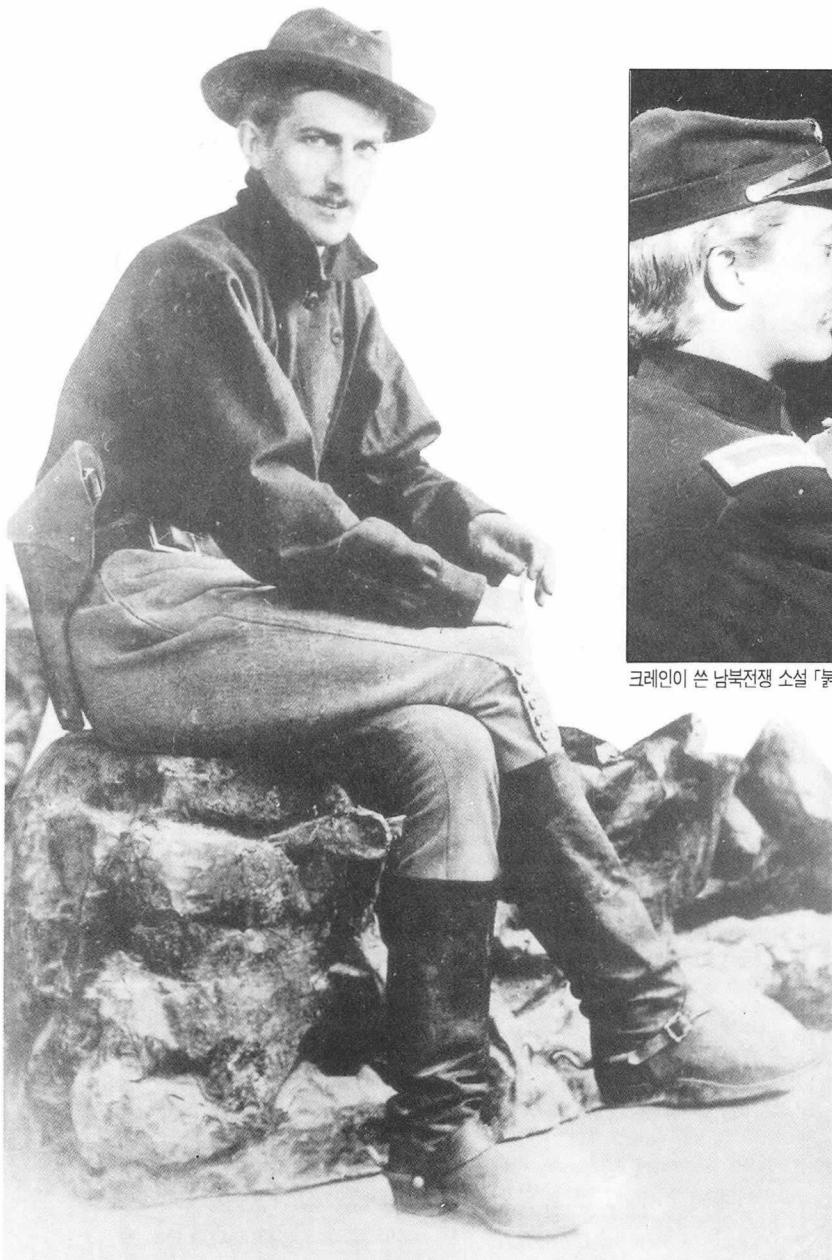


美소설의 개척자 크레인 재조명 한창

남북전쟁 소설 「붉은 용맹훈장」출간 1백주년 맞아 재평가 작업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소설가 스티븐 크레인(1871~1900).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소설가 스티븐 크레인(1871~1900)의 「붉은 용맹훈장(The Red Badge of Courage)」출간 1백주년을 맞아 크레인의 생애와 작품세계가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스미소니언誌 최근호는 크레인에 관한 장문의 기사에서 그를 ‘현대 미국소설의 개척자’로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최초의 남북전쟁 소설인 「붉은 용맹훈장」은 미국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교양과정에서 반드시 읽게 되는 작품. 따라서 크레인은 이광주, 김소월, 한용운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듯이 미국인이란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작가이다. 그러나 그의 짧고 멜로드라마같은 생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외로 잘 알려진 것이 없었다. 크레인은 「붉은 용맹훈장」 한



크레인이 쓴 남북전쟁 소설 「붉은 용맹훈장」의 영화 한 장면.

글썩씨가 담담했던 크레인은 뉴욕 트리뷴紙의 프리랜스 기자로 활동하며 뒷골목 묘사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소설은 19세때 쓴 「매기; 거리의 여자」. 창녀로 타락한 소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내용이었다. 1100부를 찍었으나 팔린 것은 불과 6권. 야심만만한 청년작가에게 쓰라린 패배였다. 이후 그는 약 2년동안 뉴욕 예술가 거리인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런 고난을 딛고 1895년 발표한 작품이 바로 「붉은 용맹훈장」이다. 신문연재 형식으로 발표됐던 이 작품은 전쟁을 동경하던 남부 청년이 남북전쟁에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1년동안 무려 14판이 나왔을 만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것. 이 책을 읽은 영국작가 H.G. 웰스는 “전쟁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작품”으로 극찬했다.

반전, 반영웅주의 소설을 쓴 크레인 자신은 정작 철저한 영웅주의자였다. 남북전쟁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종전기자로 활동했는가 하면 스페인-쿠바 전쟁, 그리스-터키 전쟁 현장까지 찾아다니며 아슬아슬한 모험을 즐겼던 것. 따라서 그의 이런 행동이 영웅주의가 아니라 자살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 그는 거친 생활에서 얻은 결핵병균

으로 인해 1900년 6월 5일 독일의 한 휴양소에서 사망했다.

스미소니언誌는 “대다수 작가들은 자기 경험을 소설로 쓴다. 그러나 크레인의 경우는 반대였다. 그는 「붉은…」을 쓴 다음 진짜 남북전쟁에 참전했고, 창녀들의 생활에 관한 소설을 내놓은 후 실제 창녀와 사랑에 빠졌으며, 파선(破船)에 대해 쓴 다음 진짜 파선사건을 경험하는 등 흥미있는 삶을 살았던 열정적인 작가”라고 지적했다.

크레인은 「조지의 어머니」(1896) 「오픈 보트」(1898) 「청색호텔」(1898) 「괴물」(1898) 등 걸작 단편소설들을 통해 미국리얼리즘문학을 개척한 자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 선정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10월달의 포도따기에 이어 매년 11월에는 ‘가장 아름다운 독일도서’의 선정을 위한 도서의 수확작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는 306명의 참가자들이 703권의 도서를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각 분야 별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선정된 57권의 도서만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가장 아름다운 독일도서 상’은 게오르그 뷔히너 상, 하우프트만 상 등과 같은 유수의 독일 문학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일도서에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도서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명예를 부여받기까지의 심사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예술적인 기예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예시를 거치고 나면 본심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안과 표현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문장력으로 표현되는 문장의 짜임새와 전체 내용과의 조화,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행간의 간격, 단어와 문단 각각의 나뉘새, 이탤릭체의 모양꼴, 그리고 인쇄 및 제본상태까지도 역시 까다로운 심사대상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출품자는 심사단에서 지적해준 결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책을 출간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제정목적이 반드시 ‘아름다운 책’으로 뽑히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독일도서’의 선정은 10개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된 분야별 책표지.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선정그룹인 일반문학분야에서는 특히, 표지장정 및 인쇄술이 내용과의 적절한 조화를 보여준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뷔르거(Gottfried August Bürger)의 「뮌히 하우젠(Münchhausen)」을 비롯한 모두 9권의 도서가 선정됐다.

인문과학서적과 실용서적 분야, 문고판서적에 이어, 가장 아름다운 예술서 및 사진서적은 역시 이상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선정된 모두 10권의 도서중에서 슈타이들(Steidl) 출판사에서 출간된 디르크 라인아르츠(Dirk Reinartz)의 흑백사진집 「죽음같이 고요한(totenstill)」은 작가의 완벽에 가까운 천재성이 심분발휘된 예술서라는 평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순간의 포착이 지닌 둔감한 사진 미학이라는 사진예술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국 심사단의 투표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어린이도서부문에서는 역시 교육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이 선정되었으며 그밖에도 교과서부문, 전기부문, 기타 특수부문, 비매품용으로 제작된 도서 부문에서 각각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결국 '독일에서 선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란 독자들이 읽기에 가장 유익하고 쾌적한 책을 일컫는다. 또한 이미 출판선진국인 독일은 가장 아름다운 도서의 선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 출판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성격과 여배우 자서전 출간

공산당 가입, 반시오니즘 옹호 등 과격한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일으켜온 영국의 성격과

여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57)가 자서전 「바네사 레드그레이브」(랜덤하우스)를 펴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줄리아」「죽음을 위한 연주」「하위즈엔드」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레드그레이브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형성된 과정과 연기관, 어린시절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활동에 대해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강(江)"이라며 강한 애착을 나타냈다. 또 "젊은시절부터 인간의 삶이 획일화, 구획화돼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다.

레드그레이브는 연극배우 마이클 레드그레이브경의 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연기생활에 발을 들여놓았다. 밑의 두 여동생도 배우로 활동 중이다. 그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오르페우스 하강」에서 불안정한 남부 주부역을 열연해 작가로부터 "영이권 최고의 배우"로 격찬받기도 했다. 현대무용가 이사도라 던컨역부터 레지스탕스(줄리아), 바람난 스코틀랜드 여왕(메리 스튜어트), 나치수용소의 유대인(죽음을 위한 연주), 죽음을 앞둔 귀부인(하위즈 엔드)에 이르기까지 레드그레이브는 다양한 배역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왔다.

레드그레이브는 연극계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인정받고 있는데 비해, 정치적으로는 호평보다 악평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로츠키 노동혁명당 후보로 수차례 하원에 출마했으나 몇백표 이상 받은 적이 없다. 사기업의 무보상 국영화를 주장해 기업가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는가 하면, 1970년대 보수당이 정권을 잡자 독재체제가 등장했다고 맹비난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란 딱지가 붙게



영국의 성격과 여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자서전을 펴내 화제다.

됐다. 베트남전 때는 영국내 미군기지 앞에서 미국참전거부운동을 주도했고, 반시오니즘 친PLO 노선으로 미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금도 미국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세프 특별대표로 임명받아 유고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드그레이브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로 1960년 로버트 볼트의 반핵연극 「호랑이와 말」 출연을 꼽고 있다. 이 연극을 통해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꼈고, 당시 남편이었던 토니 리처드슨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도 방문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화 「이사도라 던컨」에서도 던컨이 실제 공산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더 실감난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레드그레이브는 "일단 배역을 맡으면 그 인물이 놓여있는 역사적 전후관계를 우선 분석해본다. 이런 작업 덕분에 연기에 깊이와 풍부함이 덧붙여질 수 있었다"면서 연기와 정치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영화 「선들러 리스트」와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이야말로 최근들어 경험한 가장 호뭇한 일"이라며 "나는 유대민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오니즘을 포함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모든 잔혹성과 반휴머니즘을 비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